



민주 의원들 “국회보다 안철수 행보가 더 궁금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여의도에 입성한 가운데, 25일 오후 안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 인사를 다니는 사이 민주통합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 의원 관련 기사를 읽고 있다. /연광뉴스

싸늘한 민심... 제1 야당 위상 무색 안철수 세력화 땀 존립 자체 위기

4·24 재보선 전파 ... 침울한 민주당

민주통합당이 4·24 재보선 후폭풍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3곳 가운데 한 곳도 건지지 못한 것은 물론 2곳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선전도 못하고 패퇴하면서 야권의 중심축, 제1 야당이라는 위상이 무색해졌다. 오히려 안철수 당선자의 국회 진입에 따라 안풍의 향배를 걱정하는 처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초라한 현실은 오래 전에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대선 패배와 이후 이어진 책임론, 그리고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으로 끊임없이 분란만 일면서 지지층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4·24 재보선이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5일 민주당의 참패로 끝난 4·24 재보선 결과와 관련,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무엇보다 더 낮고 겸허한 자세로 당의 변화와 뼈를 깎는 혁신에 매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은 강력하고 야권의 부활을 기다린다”면서 “5·4 전당대회부터 바닥을 다지고 다시 일어선다”며 당의 혁신을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심의 외면이 심각한 상황인데다 주류-비주류로 나뉜 당내 갈등은 여전히 화약고다. 벌써부터 10월 재보선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5·4 전당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부가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민주당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역학구도 등을

대선 패배 책임 논란에 당권 둘러싼 분란·갈등 지지층마저도 등 돌려

뼈 깎는 성찰 외치지만 쇠신동력 마련 쉽지않아 “10월 재보선도 어렵다”

고려할 때 당을 쇠신할 수 있는 동력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 국회에 상륙한 안철수 바람도 심상치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당선자가 민주당 입당보다는 독자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활동을 통해 현실정치에 적응해가면서 10월 재보선을 전후로 지지세력을 조직화할 것이라 관측이다.

일각에선 안 의원이 세력화에 나설 경우 정당의 형태보다는 가정 ‘새정치연구소’와 같은 정치연구단체를 집결지로 삼아 몸풀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진영과 민주당의 선명성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5·4전당대회 이후에도 주류-비주류간 갈등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철수 슬립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으로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절체 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안철수 당선자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며 “안철수 현상은 민주당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지만 야권이 하나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과 거리 두고 협력·경쟁

안철수의 '여의도 정치'

내달 민주 전대 끝나면 정치활동 보폭 넓힐 듯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승리하며 여의도에 입성, 새 정치 실험에 본격 들어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5일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지역구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했다. 안 의원은 또 상계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 참석, “선거사무소는 오늘로 문을 닫지만 국민께서 열어주신 새 정치의 문이 열린다”며 “이제 멀고 더 험한 길을 간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처음 출석, 의원 선서를 하고 간단한 소감을 밝힌 뒤 대정부질문을 지켜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

안 의원은 우선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보좌진은 이번 주 안에 구성을 마칠 계획으로 전해졌다.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보좌진을 꾸리게 되는데, 실무형으로 구성할지, 정무형 참모진으로 편성할지 주목된다.

선거캠프에서 역할을 맡았던 이태규 전 대선캠프 미래기획실장, 박인복 전 민원실장, 정기남 전 비서실 부실장, 윤태곤 전 상황실 부실장, 이수봉 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이 후보군이다.

안 의원은 이달 말까지는 의정활동 준비에 주력하고, 내달 초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정치 지형 변화를 주시하며 활동의 보폭을 넓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밤야권의 또다른 한 축으로 떠오른 안 의원은 그동안 ▲신당 창당 ▲민주당 입당 ▲무소속 유지 등 세 갈래의 정치행보를 모두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로 열어뒀었다. 일단 안 의원은 민주당과 거리를

두며 협력적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정당이 새 정치를 가지고 열심히 경쟁할 때 최대 수혜자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 측과 민주당의 긴장관계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다. 즉, 안 의원이 민주당 입당과 독자적 정치세력 구축 사이에서 상당 기간 고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일단 여의도에 정치거점을 넓힌 뒤 10월 재보선을 전후해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독자세력화를 위한 정치작업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은 경쟁을 하다가 협력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문제의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의 국회 입성에 축하의 뜻을 건네며 ‘새 정치’를 위한 역할을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무위는 ‘안랩’ 주식이 걸리고 ... 교문위는 자리가 없고 ...

안철수 상임위 선택 고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상임위원회 선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현재 16개인 국회 상임위는 정원이

정해져 있고, 무소속 의원은 비교섭단체로 구분돼 선택의 폭이 더욱 제한되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안 의원은 원칙적으로 정무위원회에 배속돼야 한다. 재·보선으로 당선된 의원

은 전임자가 속했던 상임위를 승계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전 의원은 정무위 소속이었다.

문제는 안 의원이 안랩 주식 186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 정무위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주식보유가 직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이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주식을 산락하거나 매각해야 하지만, 안랩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자자 소송도 제기될 수 있다.

안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교문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무소속 현영희 의원 등 2명이 배정돼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같은 교섭단체 내에서 상임위를 바꾸는 것은 괜찮지만,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배정 인원을 바꾼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은 국회의장에게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상임위에 속한 비교섭단체 의원 17명(통합진보당 6, 진보정의 6, 무소속 5)과 상임위를 조정하거나 강창희 국회의장과 논의를 거쳐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그런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회갑의 해

탑인프라는 미래를 여는 나침반입니다

미래를 선도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와 다양한 시공경험으로 건축, 전기공사 및 토목공사와 저탄소 녹색환경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풍력등 환경 친화 건설사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바른기업으로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기업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기업 탑인프라가 미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회사가 하는 일

- 건축/토목/전기공사업
- 태양광/풍력발전시설 건설 및 유지보수
- 주택용 태양광, 그린홈 100만호 사업자지정

계합해 고도에 따라 태양 전지판 수동조절 효율을 높이고 가격은 낮춘 경사가변형 지지대 특허(가변형)4개 부문 보유

사공사례

- ISO9001, ISO14001(환경부문인증) 기업 녹색환경대수상(환경일보사) (광주은행) / 경영혁신형중소기업 (MAIN-BIZ)중소기업청
- 그린홈 100만호 사업자지정 수동 경사가변형 지지대특허(가변형)4개 부문 보유
- 고층빌딩리프트 / 발전량: 19MW
-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 / 발전량: 3MW
- 세종시 자전기도로 태양광발전시설 발전량: 1,875kW
- 장성동화농공단지 (주)비오엔 건설상부 태양광발전설치 / 발전량: 1.4MW

주식회사탑인프라 TOPINFRA CO., LTD. TEL. 062-574-2088 http://www.topinfra.co.kr/ 광주시 북구 추암로 69번지(대촌동 959-51, 52)